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총력

윤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10.29 14:54

- 고복저수지 복통서 실전 방불케 하는 긴급 구조훈련 실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밀폐공간 작업은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위험 현장이다.



세종시 고복저수지 복통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한국안전기술진흥원)의 기술 지원

산소 결핍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는 몇 초 만에 작업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고, 구조자마자 위험에 빠뜨리는 연쇄 재해로 확산하기 쉽다.

이러한 위험 요소성 높은 시설을 다수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 대응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지사장 조성명)는 29일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고북저수지 복통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한국안전기술진흥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및 긴급 구조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은 저수지 복통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내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 등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에 대비해, 현장 직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훈련은 단순 시연에 그치지 않고 이론 교육과 실습, 실제 모의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및 긴급 구조훈련’

훈련에 참가한 공사 직원들은 본격적인 현장 진입에 앞서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주요 원인 및 사례별 예방대책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정확한 조작법 △강제 환기장치 가동 요령 △송기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 착용법에 대한 집중 교육을 이수했다.

이어진 현장 훈련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고북저수지 복통 내부로 들어가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경을 검증하는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비상 재해 발생 상황을 가상해 감시인의 신속한 상황 전파, 안전 장비 착용 후 내부 진입, 구조 장비를 활용한 재해자 긴급 이송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현장 실전 감각을 정립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조성명 세종대전금산지사장은 현장 안전관리의 절대성을 강조했다. 조 지사장은 "모든 현장의 안전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사 및 작업 현장에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는 이번 실전 훈련을 계기로 관내 수문·복통 등 밀폐공간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과 교육을 지속 강화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는 물론 작업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형순 기자